

화물 ‘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도입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

관련법 일부개정...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도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시장 거래 단계의 합리화와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 등을 위해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공표했다. 동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과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12월 민·관·정 T/F 구성을 통해 법안이 마련된 이후,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 등에서 화물운송업체와 화물연대 등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지난 4월29일 국회에서 통과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운송업체에게 운송계약실적 신고 및 최소운송기준 준수 의무 부여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 상당수의 운송업체가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 없이 화물차주에게 지입료(운송사가 화물 차주에게 사업용 차량으로의 등록 대가 및 차량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납부 받는 금액)만 수취하여 물량확보 책임을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이 현실.

이러한 부실운송업체가 실제 운송 기능을 수행토록 유도하기 위해, 운

송업자로 하여금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실적신고제)토록 하고, 운송업자의 신고 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이 되도록 의무 부과(최소운송기준)했다

운송업체(운송·주선 겸업체 포함)의 직접운송의무 비율제도 도입했다.

현행 법률은 물량의 파동성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에게 운송계약한 화물의 100% 직접운송(다단계 금지)의무를 부여하고있으며, 한편 일부 운송·주선겸업체는 주선면허를 이용하여 운송계약한 화물을 타 운송사에게 일괄 위탁하는 것이 현실.

따라서,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의 축소를 위해 운송업체(운송·주선겸업체 포함)가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수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것은 금지)했다.

한편, 타운송사 등에 위탁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하는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운송한 것

으로 간주하여 정보망 이용 활성화를 유도토록했다.

운송 또는 주선업체의 화물운송위탁시 관리책임도 부여했다.

이는 운송 또는 주선업체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운송사업자의 운송 능력과 향후 운송결과 등을 확인하는 관리책임을 부여한 것.

지입차주의 권익보호도 강화했는데, 운송사와 지입차주의 법적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입(위·수탁)계약사외의 의무 포함 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했다.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 분쟁조정위원회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양도·양수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했는데, 시·도별 수급균형 유지와 무분별한 사업용 차량의 양도·양수를 막기 위해 양수도의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 화물 운전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화물차량 휴게소 확충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휴게소 건설계획 승인시 관

련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한 유류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등이 석유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토록 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차 등 제재가 가능토록했다.

동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제도 시행의 제반여건 마련이 필요한 ‘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등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동 제도에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는 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아울러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의 날 기념식 거행, 신 성장 동력 발굴로 현 위기 극복 다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2011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등 정부관계인사와 장광근(국회 국토해양위원장) 강기갑 김희철 홍일표 김성태 국회의원 그리고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재관 해외건설협회 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 생활과 산업의 터

전을 건설하여 국가의 번영에 기여하는 건설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설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일등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창규 롯데건설(주) 대표이사과 김경준 삼성물산(주) 전무가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최삼규 회장은 기념사에서 “건설인들은 역사의 개척자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건설강국으로 우뚝서는데 헌신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건설산업은 외환위기 이래 최대의 시련기를 맞고 있다”며 “이제까지의 공공공사의 의존도와 주택사업 일변도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영업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를 통해 서민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정부도 건설업체가 자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건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혁신도시 「중앙신체검사소」 첫 삽

건축공사비 107억원 지역업체 전액 수주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지난 15일 대구혁신도시 사업지구 내에서 최초로 중앙신체검사소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영후 병무청장을 비롯한 김범일 대구광역시시장, 유승민 국회의원, 오정석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박무익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후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중앙신체검사소 착공을 계

기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며,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중앙신체검사소는 병역의무자의 병역면제 판정 및 정밀신체검사를 받는 최종 병역판정 기관으로서, 대구혁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되면, 연간 1만 3천여명의 병역 의무자와 동반가족이 대구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청사 건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지

역건설회사가 총 건축공사비의 40% 이상을 공동도급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시행령(2011년 2월 개정)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엔 착공한 중앙신체검사소의 경우 총 건축공사비 107억원을 지역업체가 전액 수주하였고, 앞으로도 한국가스공사 등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건축공사비 약 5천억원 중 2천억원 이상을 지역건설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 청사는 에너지 효율 1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그린 1등급 인증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10% 이상 사용하고 기존 건축물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40% 절감하는 에너지 절약형 녹색 청사로 건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신체검사소 기공식과 더불어 해양경찰학교(여수 개별이전기관), 산림항공본부(원주 개별이전기관) 등 3개 공공기관이 6월 15일에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하면서, 금년 중 80개 공공기관의 청사착공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 「2011 건설의 날」 축하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

뜨겁고 열정으로 함께 일군 건설신화
우리의 의지와 저력으로 되살아나는 건설
건설인의 힘을 모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설 코리아!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FCA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Construction Associations

